

* 기여상한액은 2004년, 2010년 2회에 걸쳐 인상되었으나, 아직도 그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으며, 구체적인 기여상한액은 기업형연금의 경우 매월 최대 51,000엔, 개인형연금의 경우는 최대 68,000엔임.²⁴⁾

* 이에 더해 중도해약이 불가능하다는 점, 가입대상자에 전업주부 및 공무원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 또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유연신탁은 앞으로 고령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동 제도에 대한 인식 향상 및 상품설계 수준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해야 함.
- 변액연금, 일시불 종신보험과 관련하여 고령 계약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및 전국은행협회의 대응이 필요함.²⁵⁾

* 주로 변액연금 및 일시불 종신보험 제도가 보험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금으로 오해한 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와 중도해지를 하였을 때 경과년수에 의해 해약 반환금이 일시불 보험료에 비해 하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임.

■ 고령자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 및 비금융 자산을 활용하여 은퇴 후 소득 감소에 대비하고, 이러한 자산을 저축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 및 육아 세대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 세대는 많은 저축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을 필요로 하는 청년층의 저축액이 적은 것을 감안할 때, 은행은 고령자의 자산을 청년층 및 자녀 양육 세대를 위해 활용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지혜가 요구됨.
- 그에 더해 장래 공적연금 등의 사회보장 급여액의 감소로 인한 고령자 세대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예상되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은행은 고령자 세대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자산을 활용하여 소득 감소에 대비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24) 厚生労働省, '確定拠出年金制度の概要'. 홈페이지 참조.

25) 松岡博司, "本格始動後10年が経過したわが国の保険商品銀行窓販-特定の商品では極めて大きな販賣シェアを獲得-", ニッセイ基礎研究所, 2013.02.12.